ISSN 2586-1816 / e-ISSN 2586-4440
융합정보논문지 제7권 제6호 pp. 79-87, 2017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6.079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융합연구 -S대학 융복합 수강생을 중심으로-

최문실*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Convergence Study about Awareness towar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fficacy : Centered on the 'S' University college students

Moon-Sil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수강생의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융합연구이다. 2017년 3월13일부터 24일까지 S대학 융복합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128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도구는 Likert 5점 척도이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 인식 5점 만점 평균 3.50±.41, 의사소통 능력 3.32±.38,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3.00±.40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 능력(r=.633, p<0.01), 의사소통 인식도와 자기효능감(r=.336, p<0.01),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효능감(r=.480, p<0.01)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융복합수강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된다면 의사소통 능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융복합, 융복합 교육, 대학생, 의사소통 인식,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onvergence study is to confirm the relevance between communication 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The subjects were 128 college students studying convergence education. They answered to a self-report questionnaire during March 13 to 24, 2017. The instrument for Awareness towar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ability, Communication self-efficacy was done by Likert 5 point scale. Data was analyzed by technical statistics,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post-hoc Scheffe test using SPSS/Win 21.0 program. As a result, awareness toward communication level 3.50±.41 point, communication ability 3.32±.38 point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3.00±.40 among. Communication Aware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ability level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If there is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improve the level of communication self-efficacy, it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ability.

Key Words : Convergence, Convergence education, College student, Awareness towar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ability, Communication self-efficacy

Received 2017-11-09 Revised 2017-11-17 Accepted 2017-12-20 Published 2017-12-31
*Corresponding author : Moon-Sil Choi (ms9106@hanmail.ne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집단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에 대학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학생이 인식하는 핵심역량, 대학생 역량진단 도구, 대학생용 진단검사 등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핵심역량 가운데 하나가 의사소통 역량이다[1-4].

의사소통은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간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으로 적절성과 효과성이 요구된다[5]. 특히 대학생은 대학생활에 있어서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진출 이후에도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6,7]. 또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과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은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8].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간 사회적 문제해결의 향상을 도모하고, 신뢰성 있는 대인관계 향상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조직에서의 의사소통역량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적절히 직무를 잘 수행하느냐와 관련이 있고,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고,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8].

또한, 어떤 상황이나 과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기대나 신념을 가지고 긍정적인 문제해결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이다[9].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기능적인 의사소통 정도가 높고, 실패와 도전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탄력성과 감정조절 능력이 높다고 하였다[10,11].

대학생은 교육과정에 의해 다양한 실습을 하고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12].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자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의사소통의 기술과 자신감의 부족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13]. 따라서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공통의 핵심역량인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1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 또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인관계, 교육요구도등의 연구, 교육을 시키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연구, 치위생전공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감정조절, 대처방법,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 간호사의 의사소통과 조직몰입 연구가 다소 있고, 대학생 대상으로 의사소통 팀티칭 효과에 관한 연구이외에는 의사소통의 인식과 능력, 자기효능감에 대한 융합연구는 없는 실정이다[11,15-24]. 따라서 일반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에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 대학교에서는 핵심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교과의 통합과 융·복합적인 교육방법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학제간 융합 수업을 개설하였다. 융합 수업의 참여 교수진은 5개 학과의 교수로 모두 수업에 참여한다. 동일 수업시간에 진행되며, 교수진 각자가 개설한 수업을 공동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수업에 참여하는 융복합수강생의 현재 의사소통의 인식과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역량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융복합 수강생을 중심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 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 인식,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인식,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4년제 S 대학의 융복합 수강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강인원은 각 학과 30명 입학정원으로 5개 학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3월1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을 이해하고 참여를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1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이 부실한 4부를 제외하고 128부(97%)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2 연구도구 및 방법

연구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들을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6문항), 의사소통 인식(49문항), 의사소통 능력(49문항), 의사소통 자기효능감(24문항)으로 총 1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1 의사소통 인식

의사소통능력 인식은 학습자가 수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석재(2003)의 연구에서 개발한 '의사소통능력 평가 척도' 를 의사소통 인식에 이용하였다[25]. 이 도구는 의사소통 처리 과정에 요구되는 '해석능력(Interpretive competence)' 14문항, '역할수행능력(Role competence)' 14문항, '자기제시능력(Self competence)' 7문항, '목표설정능력(Gole competence)' 7문항, '메시지 전환능력(Message competence)' 7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9문항이며, 13문항(3,4,15~23, 25,26)은 역코딩 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의 Likert Scale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의사소통 인식은 Cronbach α = .880 이었다. 하위역량 중 신뢰도는 해석능력 Cronbach α =.745, 역할수행능력 Cronbach α =.767, 자기제시능력 Cronbach α =.551, 목표설정능력 Cronbach α =.435, 메시지 전환능력 Cronbach α = .898 이다.

2.2.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이석재(2003)의 연구에서 개발한 '의사소통능력 평가'척도를 의사소통 능력에 적용하였다[25]. 여기서 의사소통능력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하위능력으로는 성과에 필요한 과정처리능력과 시각적 관찰수준의 성과수행능력으로 구성된다. 과정 처리능력은 의사소통 관련자를 둘러싼 환경에 의미부여하는 '해석능력', 사회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역할수행능력', 자신의 가치 있는 이미지를 드러내 보이는 '자기제시능력', 전략적으로 의사소통 목표를 수립하는 '목표설정능력',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과 바람직한 관계와 지적인 메시지 창출의 '메시지전환능력'으로 구성된다.

의사소통 인식도와 같이 총 49문항중 13문항(3,4,15~23,25,26)은 역코딩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 α =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의 신뢰도는 Cronbach α=.916 이었다. 하위역량 중 신뢰도는 해석능력 Cronbach α =.686, 역할수행능력 Cronbach α =.699, 자기제시능력 Cronbach α = .784, 목표설정능력 Cronbach α = .816, 메시지 전환능력 Cronbach α =.852이다.

2.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자신의 목표에 기준을 두고 자신의 수행의 판단과 지속적인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가적 행동 반응을 말한다[26]. 즉, 주어진 상황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8].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는 첫 번째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으로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 반응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소인 자신감(7문항)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이나 신념정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요소는 과제난이도(5문항)에 대한 선호도이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정은(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고, 24문항 중 10문항(1.3.5.6.9.10.11.13.16.19)은 역코딩 되었다[27].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 α = 0.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48 였다. 하위영역 신뢰도는 자신감 Cronbach α =.702, 자기효능조절 Cronbach α =.880, 과제난이도 Cronbach α =.713로 나타났다.

2.2.4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 SPS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 인식,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검사인 Cronbach's alpha 테스트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인식,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è 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평균연령은 18-24(19.7±1.08)세 이었고, 여학생이 91명(7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교가 있는 학생보다 없는 학생이 79명(61.7%), 학과선택은 스스로 선택하였다고 한 학생이 113명(88.3%), 의사소통 관련 수강경험이 없는 학생이 95명(74.2%)이며, 의사소통 기술이 다른 친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가 73명(57%), 우수하다가 35명(27.3%), 부족하다가 12명(9.4%)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12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37(28.9)
	Female	91(71.1)
Religion	Yes	48(37.5)
	No	79(61.7)
Department selection motive	Own choice	113(88.3)
	Advice	15(11.7)
experience of taking a course	Yes	33(25.8)
	No	95(74.2)
Communication skill self-evaluation in comparison to peer	Excellent	43(33.6)
	Similar	73(57.0)
	Inferior	12(9.4)

3.2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인식, 의사소통능력, 의사 소통 자기효능감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 인식,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의사소통 인식의 총점은 3.50±0.41점이며, 하위영역의 메시지전환능력 3.77±0.64점이며, 자기제시능력 3.68±0.68, 목표설정능력 3.61±0.77점, 해석능력 3.53±0.42, 역할수행능력 2.91±0.48점 순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의 총점은 3.32±0.38점이며, 메시지전환능력 3.59±0.60점, 자기제시능력 3.50±0.57, 해석능력 3.43±0.37점, 목표설정능력 3.26±0.61, 역할수행능력 2.82±0.41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총점은 3.00±0.40점이며, 자기효능조절 3.29±0.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감 3.10±0.57점, 과제난이도 2.59±0.60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level of major variable

(N= 128)

Variables	Mean±SD
Communication awareness	3.50±.41
Interpretive competence	3.53±.42
Role competence	2.91±.48
Self competence	3.68±.68
Goal competence	3.61±.77
Message competence	3.77±.64
Communication ability	3.32±.38
Interpretive competence	3.43±.37
Role competence	2.82±.41
Self competence	3.50±.57
Goal competence	3.26±.61
Message competence	3.59±.60
Communication Self-Efficacy	3.00±.40
Self- confidence	3.10±.57
Self- regulation	3.29±.51
Task-difficulty	2.59±.6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인식, 의사소통 능력 및 자기효능감 의 비교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인식,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인식은 성별(t=0.259, p>.05), 종교(t=0.379, p>.05),

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과선택(t=-3.17, p<.05) 동기에서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서 선택했다는 응답자(3.82±0.31)에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의사소통 수강경험(t=-0.289, p>.05)을 수강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서 높았으며, 타인과 비교하여 지각된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인식(F=0.407, p>.05)에 대한 응답은 우수하다, 보통이다, 매우 우수하다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의사소통능력은 성별(t=0.335, p>.05)중 남학생에서 종교(t=1.115, p>.05)는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타의'에 의해 학과선택(t=-3.289, p<.05)을 한 응답자가 의사소통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의사소통 수강경험(t=-0.550, p>.05)이 없는 응답자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타인과의 의사소통비교(F=2.637, p>.05)에서 자신의 능력이 우수하다, 매우우수하다, 비슷하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의사소통자기효능감은 성별(t=1.305, p>.05), 종교(t=0.171, p>.05), 학과선택(t=0.693, p>.05)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사소통과목 수강경험(t=-2.235, p<.05)이 없는 사람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타인과의 의사소통비교(F=7.605, p<.000)에서 우수하다, 매우우수하다, 보통이다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4 대상자의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 인식, 능력,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 능력(r=.657, p<0.01)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인식과 자기효능감(r=.340, p<0.01), 의사소통능력과 자기효능감(r=.464, p<0.01)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Table 3. Communication ability, communication self efficacy by subject's characteristics and, communication awareness (N= 128)

Variables	Category	n	Communication awareness		Communication ability		Communication self-Efficacy	
			Mean±SD	t/ F (p-value)	Mean±SD	t/F (p-value)	Mean±SD	t/F (p-value)
Gender	Male	37	3.49±.37	-0.259	3.34±.43	0.335	3.07±.30	1.305
	Female	91	3.51±.43	(.796)	3.31±.35	(.739)	2.97±.43	(.194)
Religion	Yes	48	3.52±.39	.379	3.37±.37	1.115	3.00±.38	.171
	No	79	3.49±.43	(0.705)	3.30±.37	(.267)	2.99±.41	(.864)
Department selection motive	Own choice	113	3.46±.41	-3.17	3.28±.34	-3.289	3.00±.39	0.693
	Advice	15	3.82±.31	(.002*)	3.61±.50	(.001*)	2.93±.45	(.489)
experience of taking a course	Yes	33	3.48±.44	-289	3.29±.43	-0.550	2.86±.39	-2.235
	No	95	3.51±.41	(.773)	3.33±.36	(.583)	3.04±.39	(.027)
Communication skill* self-evaluation in comparison to peer	Very Excellent	8	3.48±.46	.407	3.39±.48	2.637	3.11±.31	7.605
	Excellent	35	3.54±.44	(.748)	3.41±.35	(.053)	3.19±.40	(.000*)
	Similar	73	3.38±.46		3.31±.37		2.95±.33	
	Inferior	12	3.50±.41		3.07±.32		2.63±.49	

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at α=0.05
*p<0.05, *by t-test or one-way ANOVA.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wareness towar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ability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variable	Communication awareness	Communication ability	Communicati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awareness	1		
Communication ability	.657**	1	
Communication Self-Efficacy	.340**	.464**	1

**P<0.01 by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4. 고찰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은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5]. 이에 본 연구는 융복합 수강생의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 인식은 '3.50±0.41점' 이었으며 하위 영역 중에서 메시지 전환능력 문항 평균이 3.7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제시능력 3.68점, 목표설정능력 3.61점, 해석능력 3.53점, 역할수행능력 2.9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인식에 관한 발표된 논문이 거의 없어,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민영(2016)의 연구가 유일하였다[28]. 인식은 3.55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하위영역으로 메시지전환능력 (3.94)이 가장 높아 본 연구와 같았고, 다음으로 목표설정능력, 해석능력, 자기제시능력, 역할수행능력 순으로 나타나 인식의 순위 차이는 다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융복합 수강생들의 구성원은 건강 증진 및 보건관련 학과의 대학생들이고, 정민영(2016)의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어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28].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의 연구에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의사소통역량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대상이 다르고 단순 비교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결과해석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5].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 3.32점 이었으며, 하위 요소 중에서는 메시지전환능력(3.5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기제시능력, 해석능력, 목표설정능력, 역할수행능력 순이었다. 간호대학생과 사회복지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인 3.15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하위 요소 중에서는 메시지전환능력이 가장 높았고 역할수행능력이 가장 낮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29]. 또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13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게 측정되었다[30]. 의사소통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결과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은 3.49 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았으며 하위영역 중 해석능력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고 목표설정능력이 가장 낮았다[31]. 또한, 간호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51점으로 나타났으며 해석능력이 가장 높았고, 목표설정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2]. 이는 간호대 학생들과 본 연구대상자는 일반 대학생으로 혼합된 학과로 하위 능력 요소의 분포가 상이한 것으로 생각된다[29-32]. 메시지전환능력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바람직한 관계성을 담은 지적인 메시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일반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서는 목표설정능력이 가장 높았고, 간호 대학생은 메시지전환능력이 가장 높았던 결과로 보아 본 연구의 대상자도 건강과 관련된 직업군으로 모여진 대학생들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유형의 성격이 있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25,29-32]. 또한, 건강 관련 학과의 대학생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우호형과 경청형이 많다고 보고한 바 있다 [33].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이 건강관련 학과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도구로 직업적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의사소통역량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역량강화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고려할 때 비교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여학생(2.97점)보다 남학생(3.07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9].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집단에서 의사소통능력에 관심도 있으며 자기효능감도 높게 가지고 있어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동료와 비교하여 스스로 인식하는 의사소통 인식은, 우수하다(3.54점), 보통(3.38점), 매우 우수하다(3.48점)로 응답하였고, 의사소통능력도 우수하다(3.41점), 매우 우수하다(3.39점), 보통(3.31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에서도 우수하다(3.19점), 매우 우수하다(3.11점), 보통(2.95점) 순으로 나타나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과 존중감이 높으면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자신감이 부족하여 의사소통능력이 낮게 표현되는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이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비유아교사의 의사소통능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문헌의 결과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에서도 평균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18]. 즉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목표설정에 대한 자기조절 및 달성도와 추진력이 높음을 의미한다[1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 종교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과의 접촉의 기회가 많은 환경에서의 생활로, 스스로 소통능력이 길러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이를 비교해 보고 싶었다. 또한, 학과선택에 있어서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조사한 이유는 학과를 선택한 이유와 소통능력과의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 결과 '자의'보다 '타의'로 선택한 집단에서 인식과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타의' 보다 '자의'로 학과 선택한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인식과 소통능력이 낮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효능조절에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소통 관련과목을 수강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 의사소통 인식(3.50)과 능력(3.32)도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3.00)도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인식이 높은 집단이 관심도 있어 능력도 높게 나타나고,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스스로 자신의 의사소통의 인식과 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집단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 능력은 r=.657(p<0.01)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r=.340(p<0.01)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r=.464(p<0.01)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능력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연구를 한 조인영(20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5]. 즉,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 능력은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도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도가 높음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요소이며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별과 자기효능감의 순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학년이나 성별에 따른 세분화된 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5].

향후 연구는 의사소통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함께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에 대하여 G·Power에 의해 표본 수가 계산되어야 하지만 융복합 수강생의 한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어 표본 수에 못 미치게 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확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융복합 연구대상자에 대한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능력과 자기효능감을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G시의 일부 융복합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부 대학 융복합수강생의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을 파악하는 연구로 2017년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128명을 최종연구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의사소통인식은 5점 만점에서 3.50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메시지전환능력이 3.77점, 의사소통 능력은 3.32점으로 하위영역에서 메시지전환능력이 3.59점,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3.00점으로 자기효능조절 3.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인식은 학과선택동기에서 '타의'(t=-3.17, p<.05)에 의해서, 의사소통능력은 '타의'(t=-3.289, p<.05)에 학과선택한 응답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수강경험(t=2.235, p<.05)이 없는 응답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능력 r=.657(p<0.01), 의사소통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r=.340(p<0.01),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효능감은 (r=.464(p<0.01)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융복합 수강자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 개발을 위한 기초 교육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융복합 수강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효능감 개발이 우선이므로 프로그램 적용 후 효과에 대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교육에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교육주기와 횟수 등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역량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역량강화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고려할 때 비교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송원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REFERENCES

[1] P. Noller & V. J. Callan. (1990).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nature of their communication with par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9(4),* 349-362. DOI : 10.1007/bf01537077

[2] Y. S. Noh & S. S. Lee. (2013). A Study on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Instrument for Diagnosing th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 A Case Study of D Women's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5(3),* 273-305. DOI : 10.18211/kjhrdq.2013.15.3.011

[3] Y. H. Kim, J. S. Chung, C. K. Lee & Y. J. Yi. (2010). An Analysis on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 of Core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Study method of education, 22(4),* 1-20.

[4] H. W. Lee & H. S. Lee. (2017). Development of Korea-Collegiate Core Competencies Assessment (K-CCCA).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1),* 97-127.

[5] J. Y. Lee, H. S. Jang & E. J. Cho. (2015). Analysis of Educational Need for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y.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3),* 1-20.

[6] H. S. Kim & S. M. Kang.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Korea Yoth Research Association, 20(1),* 157-176.

[7] K. H. Song & G. R. Ahn. (2013). The Effect of Employee'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5(2),* 117-129.

[8] S. A. Lim. (2017).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by Self-esteem for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77-84.

[9] H. S. Lee. (2016). A Convergence study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arent-Son/Daughter Communication on Addiction to Smartphones :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Stress Level,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163-172. DOI : 10.15207/jkcs.2016.7.4.163

[10] Y. J. Oh. (2004). Father-child Communication Style and Self efficac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Fam Relat, 9(2),* 201-219.

[11] K. S. Han, Y. J. Park, K. M. Kim, Y. J. Oh, J. H. Jin & H. C. Kang. (2008). Communication Style, Self Efficacy, Emotional Regulation, and Ways of Cop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ing, 17(1),* 28-34.

[12] J. W. Park, M. S. Choi. (2009).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3),* 351-360.

[13] S. J. Shin, M. S. Ju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Stress Coping,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5),* 441-455. DOI : 10.14257/astl.2016.140.38

[14] E. B. Bong. (2013).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were utilized Group Activ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0),* 394-402. DOI : 10.5392/jkca.2013.13.10.394

[15] I. Y. Cho. (2015).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 Nee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4),* 2593-2601. DOI : 10.5762/kais.2015.16.4.2593

[16] H. M. Hwang. (2017). Relationship among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2(1),* 1-10.

[17] Y. H. Cho. (2016).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on Psychiatric nurses' Imag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5(4),* 294-302.
DOI : 10.12934/jkpmhn.2016.25.4.294

[18] H. Y. Min. (2016). A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Skill, Self-identity, and Self-efficacy for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7),* 359-379.

[19] Y. H. Song. (2017). Comparing Levels of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Convergence Competency according to Their Field Experienc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3),* 147-152.
DOI : 10.22156/cs4smb.2017.7.3.147

[20] M. Y. Nam & O. H. Kweon. (2017). The Convergence over Effect of Adolescent's Maladaptive Perfectioniism and Bullyingon Victim on Suicidal Ide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29-138.
DOI : 10.22156/cs4smb.2017.7.4.129

[21] H. S. Lee, E. H. Choi & M. Y. Whang. (2009). Effects of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flict Resolution Style, and Self-Esteem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6(2),* 1-22.

[22] S. J. Kim & H. H. Kim. (2013). Impa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mong Dental Hygiene. *Journal Dental hygiene Society, 13(3),* 304-313.

[23] S. Y. Ahn. (2017). The Convergence Relation of Communication, Emotional Lab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Nurs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147-152.

[24] S. R. Rhyou & H. S. Park. (2016). Effects of Team teaching on Strategic Cultural of Curriculum Contents against Freshme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12),* 310-326.

[25] S. J. Lee, Y. K. Chang, H. N. Lee & K. Y. Park.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6] A. Y. Kim. (1998). Education Application of Motivation Theories and Issues for Future Research : Focused on Self-efficacy Theor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2(1),* 105-128.

[27] J. E. Cha. (1996). A Study of for Development of a General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search, 1(34),* 19-31.

[28] M. Y. Jung. (2016). *Need on communication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Inje University, Busan.

[29] K. K. Kim, J. Yoon, K. Y. Choi, S. Y. Park & J. H. Bae. (2008). The Effect of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Project Learning on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4(2),* 252-261.
DOI : 10.5977/jkasne.2008.14.2.252

[30] S. J. Lee, Y. K. Chang, H. N. Lee & K. Y. Park.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5(3),* 1-145.

[31] A. R. Gwon & S. J. Han. (2015).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5(6),* 1009-1017.
DOI : 10.13065/jksdh.2015.15.06.1009

[32] E. J. Ji, M. R. Bang & H. J. Jeon. (2013).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9(4),* 571-579.
DOI : 10.5977/jkasne.2013.19.4.571

[33] T. Brown, B. Williams, M. Boyle, A. Molloy, L. McKenna, C. Palermo, L. Molloy & B. Lewis. (2011). Communication Styles of Undergraduate Health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31(4),* 317-22.
DOI : 10.1016/j.nedt.2010.06.006

저 자 소 개

최 문 실(Choi Moon Sil)

- 2004년 2월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 석사
- 2013년 8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융합, 임상치위생, 지역사회보건, 구강보건